들리는가! 오월의 함성

다채로운 '5월 연극 무대'

극단 토박이 22년만에 '금희의 오월' 17일 '오!금남식당'도 극단 깍지 17일 '망대'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푸른연극 24~27일 '고백…'

1988년 서울 미리내 소극장 '금희의 오월' 초연 모습.

놀이패 신명의 대표작 '언젠가 봄날에'.

5·18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오월을 대표하는 공연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42년 전 뜨거웠던 오월의 함성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을 찾아간다. 특히 5·18을 소재로 한 첫 연극 '금희의 오월'이 22년에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끈다.

극단 토박이는 오는 20일(오후 7시 30분)과 21일·27일(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금희의 오월'을 무대에 올린다.

'금희의 오월'은 5월 27일 도청에서 희생된 전남대생 이정연의 삶을 여동생(금희)의 증언을 통해 그린 작품이다.

1988년 서울 미리내 극장에서 초연돼 5·18민중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무대극이자 오월극 중 고전으로 꼽힌다.

이 작품은 이후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됐으며 1996년 미국 7개 도시와 캐나다에서도 상연돼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금희의 오월'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으로 활동하고 이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한 고(故) 박효선(1954~1998) 연출가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초연한 작품이다. 박 연출가는 '금희의 오월'과 함께 토박이의 '오월 3부작'으로 불리는 '모란꽃', '청실홍실'을 쓰고 연출했으며 연극 '레드 브릭'을 비롯해 광주 MBC 다큐 드라마 '시민군 윤상원', '밀항 탈출' 등 오월 관련 작품을 통해 오월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 서 왔다.

공연에는 박정운·강혜림·최혜민·이종경·김정훈·백민 등이 출연한다. 무료 공연으로, 전화(062-222-6280)로 사전예약 하면 된다.

극단 토박이는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5분 시민난장무대에서 '오!금남식당'을 선보인다.

'오!금남식당'은 1980년 5월을 배경으로 주먹밥으로 한 식구가 됐던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금남관 주인 오금남의 한 맺힌 사연과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광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맛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박정운이 연출을 맡았으며 박경단·박정운·강중원·임해정·고영욱·이종경 등이 출연한다.

몸짓과 노래로 오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도 펼쳐진다.

극단 깍지는 오는 17일 오후 1시 20분, 시민난장무대에서 작품 '망대'를 선보인다.

'망대'는 극단 깍지 대표이자 마당극 배우 김호준씨가 탈광대 역을 맡아, 버려진 주인 잃은 신발을 푸대에 담아 돌아온 광대가 주워온 신발을 신고 마치 접신한 듯 이야기를 뱉어내는 내용이다. 김호준과 최근 뮤지컬 '광주'에도 출연했던 김은숙이 출연한다.

5월의 아픔과 극복을 창작탈굿, 소리, 춤 등으로 승화한 마당극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놀이패 신명은 20일 오후 5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를 공연한다.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가족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5월의 슬픔을 해원상생으로 풀어내는데 초점을 뒀다.

남기성 연출, 김호준·지정남·정찬일·강근희·김혜선·정진주·이채은·송민종·노은지 등이 출연한다.

1982년 창단된 놀이패 신명은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정기공연과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마당극 전문예술단체로 활동 중이다.

광주 극단 푸른연극은 오월 연극 '고백_나는 광주에 있었습니다'를 무대에 올린다. 24~27일(오후 7시 30분) 28일(오후 3시·7시) 씨어터연바람(동구 구성로 204번길 1-1)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019년 초연 이후 매년 수정, 보완을 거친 작품이다.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을 위한 진혼극 이기도 한 이번 작품은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었던 아버지와, 그 딸의 이야기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로 진행된다. 1980년 청춘과 2022년 청춘들의 화해와 용서를 그렸다.

이당금이 연출을 맡았으며, 부산극단 시나위의 대표이자 40년 차 배우 박상규가 계엄군역에 작가인 오성완이 만호반점 주인역, 계엄군의 딸 역할에는 오새희가 열연한다.

한편 '고백_나는 광주에 있었습니다'는 지난 12~14일 서울 대학로 스타시티에서 첫 서울 순회공연을 마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느꼈는가! 오월의 서사

5·18 뮤지컬 '광주' 광주 공연 성료

세 번째 시즌 완성도 높여 시민 중심 서사 웅장한 무대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광주'의 광주 공연이 14~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져 감동을 선사했다.

"진실을 진실 되게 알고 진실 되게 행하는 자, 진실 속에 영원히"

극이 끝나고 출연진들이 추모의 의미를 담은 비문 앞에서 예를 갖추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80년 광주 5월의 진실은 결코 묻어둘 수 없으며, 진실을 바로 알고 행하자는 의미가 뭉클하게 다가온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뮤지컬 '광주'(고선웅 연출)의 광주 재공연이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4일과 15일 이틀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 무대는 5월 그날의 감동을 오롯이 담아냈다. 세 번째 시즌답게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특히 편의대와 관련한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한 점이 돋보였다. 왜 광주시민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작품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작품은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야학교사 윤이건의 비중을 높여 시민 중심의 서사에 무게를 실었다. 광주 출신 편의대원 박한수가 군사 권력의 계략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시민들을 지켜보며 고뇌하고 변화되는 장면도 인과성을 높인 부분이다.

이번 시즌의 음악 또한 신곡이 추가됐으며 섬세하게 수정됐다. 작품에서 시민군의 의지와 믿음을 강조하는 '눈에 눈', 거짓으로 얼룩진 광주의 급박한 상황을 대변하는 '높은 담장이 광주를 가두네' 등 신곡이 추가돼 극적 효과를 거뒀다. 최우정 작곡가는 "음악보다는 작품 전체의 주제가 더 명확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섬세한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서사의 핵심에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자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야학교사 윤이건 역을 가수 이지훈, 배우 조휘가 맡아 열연을 펼쳤다. 또한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인물을 모티브로 한 정화인 역은 문진아와 김나영이 맡았다. 또 '오활사제' 역에는 이동준이, 거리 천사'에는 광주 출신 김은숙과 김아영 배우가 연기했다.

36명의 배우와 13인조 오케스트라가 함께 펼친 무대는 항쟁에 나섰던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과 숭고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우리들의 사랑·명예·이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극중의 가두방송은 42년 전 광주의 아픔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생생한 진실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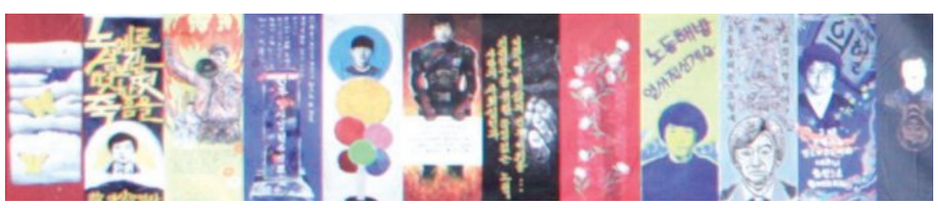
한편 뮤지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문화재단의 '2019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2021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창작 부문 프로듀서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15일부터 5월까지는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이는가! 오월의 얼굴

5월묘지 입구 30일까지 예술만장전

'스스로 오월이 된 사람들' 이한열·박관현·박종철 등 5·18 진상규명 앞장 40인



올해도 어김없이 망월길에 5월 정신을 상징하는 만장〈사진〉이 걸렸다. 광주정신과 대동세상의 염원을 담아 그날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의미다.

광주민예총은 5·18 정신을 계승하는 예술만장전을 오는 30일까지 국립 5·18묘지 입구에 전시한다.

지난 2020년 5·18 40주년부터 3년째 이어지는 예술만장전은 참배객들에게 5월 정신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주제는 '스스로 오월이 된 사람들'.

광주항쟁이 광주라는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고 전 국민이 365일 만들어온 항쟁으로 기록하기 위해 80~90년대 전국 곳곳에서 5월 진상 규명을 외친 열사 40분을 모시는 열사전으로 진행된다.

87년 연세대 재학 중 경찰 최루탄 파편에 맞아 사망한 광주 출신 이한열 열사, 80년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광주항쟁과 관련 구속돼,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단식 중 운명한 박관현 열사 등의 만장을 볼 수 있다. 열사 40인은 광주전남추모연대 추천으로 선정됐다.

광주 참여 작가와 이들이 그린 열사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김병택(장용훈 열사), 김희련(기혁), 노여운(이상남), 바다(박관현), 박철우(이철규), 박태규(김병국), 이사범(송광영), 정희승(홍기일), 조정태(이상모), 허달용(김학수) 등이다. 이밖에 서울 참여 작가와 이들이 그린 열사는 박은태(박종철), 박흥순(이재호), 이종희(이한열), 이철재(표정두)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산따라 물따라'

보기만 해도 시원

김남기 작가 '단오의 선요' 전 금봉미술관, 6월 5일까지 부채 그림 그리기 체험도

다양한 부채 그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은 오는 6월5일까지 다양한 부채 그림을 그려온 종산 김남기 작가를 초청, 부채그림 전시회를 갖는다.

'단오의 선요(端5의 扇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부채 그림을 만날 수 있으며 작가와 함께 직접 부채 그림을 그려보는 행사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조상들은 오월 단오 무렵에는 부채를 선물하곤 했다. 다가오는 여름에 시원하게 부채를 부쳐 더위를 쫓고 먼지 같은 것을 날려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배려다. 또 액귀나 병을 몰고 오는 나쁜 기운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으며, 특히 이 부채를 '벽온선(辟瘟扇)'이라 불렀다.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 김 작가는 다양한 크기와 여러 가지 색지 바탕의 부채에 매화, 참새, 목련, 막걸리 주전자, 풍경 등 매우 다양한 소재들과 그림과 연관된 시를 담았다. 김 작가는 송전석(서예), 김인화(문인화), 김재일(한국화) 선생을 사사했다.

전시에서는 또 김대석 부채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부채도 만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행사도 열린다. 21일, 27일(오후 2시~4시)에는 '김남기 작가와 함께 제작하는 부채 작품' 행사를 진행, 단오날인 6월 3일(오후 1시~4시)에는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부채 위에 참여자가 그림을 그리는 행사를 연다. 참가비 무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